

한국희곡 영어번역의 교육적 가치 고찰

2022.10.7.

홍정민(동국대학교, 서울)

본 연구는 한국문학 중 희곡의 영어번역 부족 현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희곡 영어번역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그 극복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문제의식과 극복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희곡 영어번역의 가시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 문학 및 공연예술 번역과 관련 연구의 세분화, 정교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상식을 통한 가시성 제고 필요성은 희곡과 여러 특징을 공유하는 뮤지컬의 번역 현상을 연구하는 저에게도 매우 반가우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관점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간과되어왔던 문제를 공론화해주시고 유용하고 효과적인 극복 방안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논문을 통해 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에 앞서 발표에서 궁금했던 부분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연학과 함께 묶고 있는데 그것은

1. 한국 희곡의 영어번역이 전체 문학 대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전체 한국 문학 내 희곡의 비중 대비로도 영어번역의 비중이 낮은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교수님께서서는 희곡을 어떤 장르에 가깝게 보고 계시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초반에는 문학 장르의 영역 안에서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후 시상식을 통한 가시성 제고 필요성 논의나 교육적 활용 가능성 확대를 위한 제언에서는 공연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교수님의 제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희곡을 실제 무대 상연을 위한 텍스트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즉 공연예술 장르에 가깝게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관점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3. 교육을 통한 희곡 영어번역의 가시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방안은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희곡 번역이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외국어 학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관점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